

01 교회소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매년 교회 창립 기념 행사 시 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며 감동적인 공연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02 생명의 말씀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주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자랑하게 된다.

03 기획특집_ 만민의 역사 2

제2도약기, 세계가 진동하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펼친 우리 교회의 '제2도약기'를 되돌아본다.

04 간증

“주님 은혜로 가득한 나의 삶”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김영호 형제와 무안단물로 폐암의 위험에서 보호받은 페르난도 보르본 대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49호 2012년 9월 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모델, 예능위원회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하늘과 땅> 공연 준비 한창



천사장의 찬양, 천사들의 무용, 천국 새 예루살렘 놀이동산, 목자의 성에서의 연회 등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축하공연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국을 표현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국내외에서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보지 못한 최고의 수준이라고 극찬하는 다양한 언어의 찬양, 아름다운 의상, 무용과 연주가 어우러진 화려한 공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기대를 더하고 있다.

오는 10월 7일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위원장 이희진 목사)에서는 본격적인 축하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공연은 '하늘과 땅'이라는 주제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환상적인 공연을 위해 무대 제작, 찬양 편곡·녹음, 안무 연습, 의상·소품 제작 등 500여 명이 동원된다.

매년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우리 교회 창립 축하공연은 닥시 오케스트라 연주와 성가대 찬양, 다양한 예능팀의 성대한 공연이 화려한 의상과 소품, 아름다운 특설 무대와 어우러져 천국 연회장을 표현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2010년 교회 창립 28주년에는 이 땅에서 경작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담은 '바다에서의 연회(사진 ①

~③)가, 2011년 교회 창립 29주년에는 천국 새 예루살렘 연회를 표현한 '목자의 성'(사진 ④~⑥, ⑧~⑨)이 공연됐다. 특히 해외 손님들과 함께하는 다국어 찬양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을 받았다(사진 ⑦).

이는 당회장 이재목 목사가 개척 때부터 시편 150편을 놓고 기도하며 찬양팀 육성과 인재 양성에 힘써온 열매이다.

현재 찬양 전문 닥시오케스트라를 비롯해 5개 성가대와 천상의소리선교단, 파워워십팀, 천상의무용팀, 크리스탈싱어즈, 빛의소리중창단, 예술선교단, 사랑울동단, 새렘국악선교단, 금관앙상블 등 24개 예능팀, 18명의 솔리스트, 만민스텝과 헤어·메이크업 팀 등으로 예능위원회가 조직됐으며 꾸준히 새로운 팀이 탄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은 악이 없

는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실력 향상과 더불어 성결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이 목사는 찬양마저 세속화 돼가는 요즘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자 힘써 왔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과 사랑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노래를 지어 주셨듯이(신 31:19~22) 2009년부터 세계 만민이 부를 수 있는 '만민 찬양'을 주고 계신다. 현재 160여 곡이 나와 있으며 5집 앨범을 제작 준비 중이다.

예능위원회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예배 시 준비찬양과 특송은 물론 매년 부활절, 성탄절, 교회 창립 기념일 등 교회 행사 시 공연을 감당하고 있다.

국내 교계 행사는 물론 해외 집회에서도 수준 높은 기독 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며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세계 선교와 국위선양에도 한몫을 해왔다. 현지 전통의상과 민속춤, 정확한 발음의 현지어 찬양으로 감탄을 자아냈고, 부채춤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외교사절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예능위원회 공연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만민 찬양'에 기초를 두고 있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세상 문화와는 달리 부를수록 마음이 정화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앞으로도 예능위원회는 21세기 기독문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기독교 종합예술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비전으로 영육 간에 최고 수준을 갖추기 위해 변화를 거듭할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4)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일할 의욕까지 상실하지요. 이렇게 시기 질투가 있으면 낙심이 됩니다. 상대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만 깊어지지요.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상대의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잘되니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곧 ‘자기(自己)’가 살아 있다는 뜻이지요. 상대보다 더 사랑과 인정받고 싶은 자아가 살아 있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런 시기 질투가 심해지면 악한 말과 상대를 해하는 악한 행동까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투기입니다. 투기는 악하고 추한 마음의 죄성이 겉으로 드러난 현저한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갈 5:19~21).

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다윗을 투기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적장 골리앗에게서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3미터 가까운 장신(長身)에 청동갑옷으로 무장한 블레셋 최고의 전사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지요. 그런데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좌불안석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한 적장을 물뿔들로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고 다윗은 일약 국가적 영웅이 돼 백성의 사랑을 받지요.

사울 왕은 뒷날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자극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어느 날 수많은 백성이 나와 대환영을 하지요. 이때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 하며 노래를 합니다. 이에 사울은 분개하지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며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합니다(삼상 18:8~9). 그리고 악신으로 고통받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장을 던져 죽이려 하는가 하면, 블레

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음모를 꾸미고 최고의 무사들을 시켜 살해하려고 하지요. 집요한 사울 왕의 투기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고 나서야 그쳤습니다.

욥기 4:8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말씀했고, 잠언 14:30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악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악을 뿌린 대가로 병을 얻거나 가정과 일터에 재앙을 당하기도 하지요. 시기, 질투, 투기는 백해무익하며 영으로 들어가는 데 큰 장애물이 되기에 온전히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2.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보다 자신이 더 나은 분야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잘한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데에는 몹시 인색합니다. 상대가 드러나는 만큼 자신이 가려지기 때문에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자랑이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랑하면 높아지고 인정받을 것 같지만 정반대이지요.

요한일서 2:15~16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좇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을 말합니다. 육의 사람들은 가문이나 명예, 권세, 고급승용차, 집이나 보석 등을 자랑합니다. 권세자나 유명인과 친분이 있으면 으쓱해지고 자랑스러워하지요. 이들은 인생의 가치를 이땅에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자랑할들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전 1:2~3), 인생은 일순간에 피었다 지고마는 들꽃처럼 쉬이 지나갑니다(시 103:15). 이 세상의 자랑은 참된 가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3.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비진리를 벗어 버리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정욕도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1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받은 간증을 자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육 간에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 있었다.”며 자신을 드러내지요. 결국에는 자신의 공로로 돌리니 사단의 송사를 받아 시험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헛된 욕심을 불러일으켜 멸망으로 인도할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천국 소망을 채워 나가면 이생의 자랑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옵니다. 마치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았던 장난감이 어른이 되면 시시해지는 것처럼, 마음을 진리로 채워 나가면 육적인 자랑이나 세사적인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시기 질투는 신앙생활에 무서운 암적 요소입니다. 이는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않지만 가까운 사이나 경쟁관계에서는 잘 나타내지요. 가령,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어떤 회사원이 출세해 인정받는다고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동일 업종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 잘되면 싫고 불안해하지요.

이런 시기 질투가 심해지면 투기로 나옵니다. 자랑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1.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는 마음의 시기 질투가 심해져 남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잘 되거나 사랑받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가 있으면 자신보다 부유하며 능력이 많은 사람을 보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같이 입사한 동료는 고속 승진을 하는데 자신은 아직도 말단이니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힘이 빠지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제2도약기 :: 2000~2009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다

1982년 교회 창립예배를 드린 후 초대교회와 같이 급속한 부흥을 이룬 만민중앙교회는 1993년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서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됐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됐다. 하나님 섭리를 이루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제1도약기를 지난 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2000년 3월에는 전남 무안 바닷가의 짚물이 단물로 바뀌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7월에는 CNN에 보도된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세계선교시대가 도래했다. 10월 '파키스탄 연합대성회'는 이슬람 국가에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2001년 개최한 '케냐 연합대성회'에서는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이 치료됐고 '필리핀 연합대성회'를 통해 가톨릭 국가 필리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2002년 중남미에 성령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온두라스 연합대성회', 국민의 대다수가 힌두교도인 인도에서 연인원 3백만 명 이상이 운집한 '인도 연합대성회'를 통해 무수한 영혼이 개종하며 치료받았다.

2003년 중동선교의 문이 열렸으며, '러시아 연합대성회'를 통해 12개 위성국과 공중파, 케이블 TV, 인터넷 등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성결 복음이 전파됐다.

2004년 '독일 연합대성회'를 통해 성결 복음이 유럽 전역에 전파됐고, '페루 연합대성회'는 현직 대통령을 비롯 정계, 언론계, 교계 지원 속에 개최됐다.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WCDN, 만민국제신학교 MIS가 조직됐으며, 여러 언어로 번역된 이 목사의 신앙서적과 함께 이후 전 세계에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활발히 전하고 있다.

2005년 9월,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송출실에서 첫 전파를 쏘아올린 GCN 방송은 10월에 개국해 방송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06년 '콩고민주공화국 연합대성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연인원 70만 명 이상 인파가 운집했으며,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뉴욕 연합대성회'는 GCN 등 위성 및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송출됐다.

2007년 7월부터는 3년간 이스라엘 선교 사역이 시작됐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최남단 예일랏에 이르기까지 성결 복음을 전하며 권능의 역사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기독교계가 힘을 얻고 메시아닉 유대인들뿐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도 성회에 참석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9년 9월에는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개최해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담대히 선포했다. 이 성회는 AP, 로이터 등 세계 유수 방송사들이 취재 보도했고, 전 세계 33개 방송사를 통해 220여 개국에 송출됐다. 이것은 전성도와 함께 이룬 피땀 어린 기도의 결실이었다.



권능의 현장, 무안단물터



CNN에 보도된 2000 우간다 연합대성회



2000 파키스탄 연합대성회



2001 케냐 연합대성회



2001 필리핀 연합대성회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운집해 무수한 치료와 개종의 역사가 나타난 2002 인도 연합대성회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



2004 페루 연합대성회 시 대통령과의 환담



2006 콩고민주공화국 연합대성회 시 대통령과의 환담



2006 뉴욕 연합대성회



땅끝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음악 연주자인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한 저는 어릴 적부터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돌잔치를 할 때 콘트라베이스 활을 잡는가 하면, 돌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연습하시는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3시간이나 꿈쩍하지 않고 들을만큼 좋아했다고 합니다.

급성 맹장염을 믿음으로 치료 받은 후

2005년 11월,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갑자기 구토와 열, 복통 증세가 나타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고 호전됐습니다. 그러나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부모님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급성 맹장염인데 이미 고름이 새어나와 곧바로 수술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지요. 어린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치료받겠다고 하자 부모님도 대견해 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그날 밤 김상태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 대예배 시 화상을 통해 당회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순간 박하향처럼 시원한 느낌이 온몸에 돌아 그 즉시 치료받았음을 알 수 있었지요.

그 후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거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진단 결과, 치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방과 후 성전에 들러 기도하고, 각종 예배는 물론 남장년 구역예배까지 가족과 함께 참석하는 등 예배와 기도를 즐겨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연합회장을 역임했지요.

목자의 간절한 사랑에 감동받아 결단하니

2009년,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친구들을 따라 머리 스타일과 옷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신앙은 겉보기에는 충만했지만 마음을 진리

로 변화시키는 일은 게을리 했지요. 그러다보니 세상 것들이 좋아 보였고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사랑과 천국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던 2010년, 당회장님께서 학생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범죄함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목자의 사랑으로 변화된 주바라기입니다”

김영호 형제 (마산만민성결교회)



간절히 눈물로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을 향한 사랑임을 깨닫자 절로 숙연해지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뒤 저는 지난날을 회개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반드시 당회장의 값진 열매로 나와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목자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학생이 되고자 힘쓰는 제게 하나님께서는 제17회 만민학생찬양제에서 대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학생 하계수련회 때마다 개최되는 찬양제에 2007년부터 참가했는데, 그해에는 예선에서 탈락, 다음 해는 인기상, 그 다음 해는 은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횡수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목자의 기쁨이 되리라'는 마음을 다졌는데, 목자의 사랑으로 결단한 후 마침내 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각종 대회마다 수상의 영예로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1학년 재학 중이며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는 서울 본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에 당회장의 축복기도를 받고 참가해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 한국음악협회 창원지부 주최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고등부 관현악 부문 대상, 2011년과 2012년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음악협회 주최 전국 학생 음악경연대회 콘트라베이스 부문 1등, 2012년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 글로벌 아트홀 공동 주최 제13회 글로벌 전국 음악콩쿠르 최우수상, 대학부 금상 및 특별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음악 가족입니다. 아버지 김준혁 집사님은 마산만민성결교회 닛시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어머니 이미경 집사님과 동생 김주는 자매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봉사하고 있지요. 저 또한 악기 연주뿐 아니라 예배 전 준비찬양 인도와 수요찬양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를 찬양사역자로 삼아 주시고, 행복한 음악 가족으로 인도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중보 기도와 무안단물로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페르난도 보르본 목사 (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대사)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실자의 기도'를 전하는 페르난도 보르본 대사(우측) (2011.11.)

주님께서 다시 한 번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2012년 1월, 하루 종일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기침 소리에 잠을 깨곤 했고 직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오직 설교하는 시간에만 잠시 기침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3월 3일, 저는 이곳 과테말라 메디컬 센터에 갔습니다. MRI 촬영 결과 18밀리미터 되는 혹이 발견됐습니다. 폐기관지 임파선병증(임파선 비대)으로서 폐암 초기로 의심되는 증세였지요. 의사 선생님은 4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월 22일, 저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지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혹이 사라지고 모든 증상이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말했지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치료하신 걸까요?

저는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있는 목사님과 형제 자매, 이곳에서 제가 설교했던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에서 가져온 무안단물(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안바닷가의 잔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을 마셨지요. 이렇게 저는 주님 사랑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오는 10월, 만민중앙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찬양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림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3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920-4512, 010-3343-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미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진주만민교회 전북 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백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